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오늘 공동의회

시간 : 오후 2시
(4부예배 후)

장소 : 본당

대상 : 등록 세례교인

지난 주 <주간충현>에 공고된 대로 제43대 장로 및 제23대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4부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를 결정하는 시간인 만큼 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담무 2:20~21).

*공동의회관계로 교구모임은 없습니다

왕이 오신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목상하는 사순절이 그 절정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동시에 종려주일(Palm Sunday)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데서 종려주일은 기인합니다(마 21:9). 특히 이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군중들은 돌변하여 며칠 후 로마의 관청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요 19:6)라고 외쳤습니다. 이틀처럼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변하는 "호산나"의 고백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종려주일이 되도록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지금은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1~10)

로마서 9~11장은 믿음의 의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음을 밝힌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로마서 11장은 시작한다. 사실 이 문제는 로마서 9장부터 다루어 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선택을 포기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렸단 말인가? 이것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인 '남은 자'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남은 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사 6:13, 10:20~22).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버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울 자신이다. 비록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방인의 수에 비하면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엘리아의 때처럼 그 수가 적을지라도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왕상 19:14,18).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이다(시 94:14). 비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 영적 이스라엘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존재할 것이다. 엘리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롬 11:4~5).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남은 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질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에 달려 있다(롬 9:29 ; 사 1:9).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언약에 전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

'남은 자'와 '선택 받은 자'는 공용어로 쓰여질 수 있다. 남은 자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따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들 자체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가 남은 자에 속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롬 11:6). 이것이 바로 욕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약속의 완성을 받는다(롬 11:7).

택하심을 입은 자는 곧 남은 자다. 이스라엘의 작은 무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고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붙잡았으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사 29:10; 신 29:4; 롬 11:8).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깊은 잠에 빠져 이를 볼 수가 없다. 복음이 온 지면에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들었다(롬 10:18).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또 들은 것에 부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형이, 자람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의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열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든다.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외친다. "그들의 방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텅 빈 되게 하소서"(시 69:22). 아멘.

THE KING IS COMING

⁽¹¹⁾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ese things, Jesus went on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y sup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immediately. ⁽¹²⁾So He said, "A nobleman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and then return. ... ⁽¹⁵⁾"When he returned, after receiving the kingdom, he ordered that these slave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be called to him so that he might know what business they had done. (Luke 19:11-15)

Palm Sunday commemorates the triumphal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to celebrate the Passover. The King was coming to His palace. The gospels record the arrival of Jesus riding into the city on a donkey, while the crowds spread their cloaks and palm branches on the road an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an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to honor Him as their long-awaited Messiah and King. The cheering crowds consisted of the poor, weak and sick. The religious officials, like the high priests, Pharisees and scribes were not there because they hated Him. The significance of Jesus riding a donkey and having His way paved by the crowds with palm branches is a fulfillment of a prophecy spoken by the prophet Zechariah,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Zech. 9:9). In Biblical times, the donkey was a symbol of peace and the laying of palm branches indicated that the king or a dignitary was arriving in victory. Today's Bible verses are a parable spoken by Jesus to prepare His disciples for Palm Sunday,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ese things, Jesus went on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y sup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immediately" (Lk. 19:11). On this last Sunday of Lent, let's look at Jesus' parable to help us reflect on the final week of His earthly life, and prepare our hearts for the agony of His crucifixion and the joy of His resurrection.

In Jesus' parable, a nobleman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Lk. 19:12). "But his citizen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saying, 'We do not want this man to reign over us'" (Lk. 19:14). A lot of people look at Jesus negatively because of his poor birthplace in Bethlehem, but the Bible tells us,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c. 5:2). Jesus was not born in a palace,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k. 2:7), but the angels wonderfully proclaimed,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Lk. 2:11-12). Even though Jesus was born in a poor environment, He is really the King of kings. The eastern wise men traveled a great distance to see this special King.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Mt. 2:1-2). Sadly, Jesus' kingdom did not recognize Him, and those of authority and prominence flat out rejected Him. The professional religious leaders hated him. The large crowd following Him into Jerusalem "took the branches of the palm trees and went out to meet Him, and began to shout,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he King of Israel'" (Jn. 12:13). These same people, influenced by the religious experts, crucified Him four days later. Jesus was betrayed, beaten, and crucified, "And after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they knelt down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They spa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began to beat Him on the head" (Mt. 27:29-30),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Lk. 23:33). Praise God, three days after His crucifixion, He rose from the dead. The angel told Mary Magdalene at His grave,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Mt. 28:6). The Resurrected King received His kingdom.

In Jesus' parable, after the nobleman received his kingdom, he was going to return (Lk. 19:12). The nobleman had to leave, but he was certain to come back.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know that as King He had to go away, but that He would return. He spoke these words because His disciples expected the kingdom then. God's timetable is better than ours. Jesus' triumphal entry began at the Mount of Olives (Mt. 21:1) and His ascension into heaven was at the Mount of Olives (Ac. 1:11-12). He will be back. Do you have the patience to wait for His return? When He comes back to His kingdom, His triumphal entrance will be much greater than before. Revelation 19:12-16 say, "His eyes are a flame of fire, and on His head are many diadems; and He has a name written on Him which no one knows except Himself. He is clothed with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And the armies which are in heaven,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were following Him on white horses. From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so that with it He may strike down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s the wine press of the fierce wrath of God, the Almighty. And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My dear friends,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Rev. 22:20). The King is coming!

In Jesus' parable, the slaves of the nobleman had a duty. "And he called ten of his slaves, and gave them ten minas and said to them, 'Do business with this until I come back'" (Lk. 19:13). and a time of accountability, "When he returned, after receiving the kingdom, he ordered that these slave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be called to him so that he might know what business they had done" (Lk. 19:15). Like the nobleman, Jesus commands us to carry on His work,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The nobleman left his servants with a gift, and Jesus leaves us with the greatest gift.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 1:8). We are Christ's representatives on this earth, and we are to seize each moment to serve Him. The nobleman gave his servants ten minas. How many talents has Jesus given you? Are you a diligent worker?

My dear friends, today is Palm Sunday and Jesus is coming back with His kingdom. Until He comes, you have a responsibility. Right now, the 21st century Churches are rejecting Jesus by glorifying themselves. What about you? Are you rejecting or welcoming Jesus? If you are welcoming Him into your life, do you understand the duty that has been given to you? Please know that the King is really coming! Are you prepared for His triumphal entry and kingdom? Amen. 

왕이 오신다

⁽¹⁾“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²⁾“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 ⁽³⁾“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누가복음 19:11~15)



김성직 목사

종려주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왕께서 자신의 왕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깔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요 왕으로서 맞이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병든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권력들은 그 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는 모습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 9:9).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는 왕 또는 고귀한 사람이 승전하여 도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려주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눅 19:11).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마지막 한 주년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진심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한 여행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까 (눅 19:12).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다 하였더라” (눅 19:14).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잘 것 없는 촌출처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첫아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눅 2:7). 그러나 천사들은 놀라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 (눅 2:11~12). 비록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할지라도 그 분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보고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루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예로되 경배하러 왔노라 하더라” (마 2:1~2). 슬프게도 예수님의 백성은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세자들과 귀인들은 주님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 12:13)라고 환영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나흘 뒤에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을 받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매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환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 27:29~30). 그리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각자도 그렇게 하니” (눅 23:33).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삼 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 28:6). 부활하신 왕께서 왕위를 받으셨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오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귀인은 왕위를 받은 후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눅 19:12). 귀인은 떠나야 했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떠나야 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훨씬 늦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환호를 받으며 감람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 21:1).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었습니다(행 1:11~12).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시까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나라에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의 입성은 이전보다 더 장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12~16은 말씀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함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한 자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 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왕께서 오실 것입니다!

왕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귀인의 종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라” (눅 19:13).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눅 19:15). 비유 속의 귀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귀인은 종들에게 은화를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맡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매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귀인은 하인들에게 열 그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한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맞아들이셨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왕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스런 입성과 그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

메시아의 죽음 26

다른 사건들 (진행되는 순서)

은 공관복음서임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유대인이었던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의 죽음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마태와 마가는 홀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눅 23:27).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또한 고난을 슬퍼하는 여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눅 23:28).

요한은 종교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때 빌라도가 어떻게 너희의 앙을 못 박을 수 있는냐는 물음에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15). 대제사장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던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한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요 1:37). 이것은 마태·마가·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이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요한은 기록하였다(요 4:21).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많이 할애하였다(눅 1:13). 특히 누가는 이방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스데반은 복음에 적극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행 7:48). 또한 사마리아 복음화를 주도했던 빌립(행 8:13~14)의 사역도 누가는 기록했다.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순한 필립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바로 누가는 참신자가 가야 할 길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십자의 길은 부와 명예와는 상관없다. 환난과 핍박만이 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하였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심이 없다.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외면한다. 대신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결국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따라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사실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각각의 관점을 가진 기록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야 시대에 이방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왕상 19:18). 우리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발, 창에 찔린 옆구리에 두며 죽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마 16:24). "우리의 눈이 십자가 보혈로 밝혀져 영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아(2010. 3. 17)

베드로의 부인 (누가복음 22:54~62)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했는가? 그는 수석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마 16:21). 이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마 16:22).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수난과 죽음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라고 큰소리쳤다. 더 나아가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라고 말했다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그대야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른 모든 인류가 십자가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눅 22:19~20).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초접이 없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나뭇데로의 신앙은 투철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결심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자신을 위한 결심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신념이나 충성심, 욕망이나 자기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몰랐기에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 멀러서 따라가는 베드로 베드로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잡혀 가시는 예수님 주위를 맴돌며 멀쩡히 따라갔다(눅 22:54).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베드로는 가졌던 것 같다. 그는 대범하게 대제사장

의 뜰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눅 22:55). 이 때 사탄은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와 같이 사탄은 신자들을 호시탐탐 노린다. 바로 우리는 사탄의 주 공격목표다. 그래서 매순간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상태나 다름이 없다(벧전 5:8).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무방비상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다(눅 22:45). 결국 베드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는 말씀과는 상관없었다. 그저 죽을가 겁나 예수님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 군중은 질문한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베드로를 집중 공격하였다. 한 여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는 받는다. 처음에는 적당히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눅 22:56). 그러나 다음 질문에 베드로의 양심은 더욱 흐려졌고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부인은 극에 달했다(눅 22:58,59).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는 오히려 빛과 찬 맛을 잃었다(마 5:13~14).

●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재로 답할 때 예수님은 그를 버리고 갔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려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울을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60~62). 닭울음소리가 쇠고라 되어 베드로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며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마 26:75).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마 16:6~7; 요 21:15,17). 이전에는 급한 성격과 과잉 충성, 자기 의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눈물이 있다.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참 제자로 바뀌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 멀쩡이 있었다. 결국 군중의 질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베드로는 실책자이다. 그런데 이 모순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으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는 회개하였고, 행복한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진실로 애용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 피의 흔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청년1부팀

19교구 총력 교회주변 전도연장(2)
**전도는
나와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인두사원으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시바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며 위협을 받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연도)

✚ 몇 달 안 되는 전도지의 글이 과연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말씀은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어 그 은혜가 축약해 객객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기 두려워하고, 때가 되면 그들의 손 잡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며, 그들의 손을 붙들 때 주님이 함께 잡아주시심을 체험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윤지원)

✚ 한 영문 안 영문들이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해 어두웠던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넘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경남까지 역사하고, 진정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인주)

✚ 사역이 끝나갈 때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분은 말씀 하나하나에 감탄하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대단한 일 많아 부끄럽네."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영규)

✚ 매일매일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 놀라운 섭리,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기를 체험했던 감격스러움은 시간이었습니까. 이변의 선교가 끝이 아닌 시작점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소명을 더욱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선교사와 삶을 살겠습니다. (강선영)

✚ 사역을 준비하고 파송 받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팀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과 자기부인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처음이었던 저는 그 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사도행전의 선교가 선교연장에서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정석)

✚ 이렇게 순수한 영문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생각을 하니 한 영문 한 영문 더 붙잡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지를 읽어도, 언어도 잘 전달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어느날 그 영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처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경진)

✚ 복음을 접했던 한 대학생은 자신의 친구들이나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타까웠고 찬양이나 예배,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땅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복음의 불로지인 이 땅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심지승)

✚ 사역을 시작하여 영문들을 만나며 매마름 마음으로 그저 암기만했던 선교 언어를 그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녹아들기 전에 저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엘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 듯 저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내 발에 소 줄들이 없을 지라도...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말씀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만나 눈물로 적시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원)

✚ 내 입에 예수와 이름을 허락하시고 예수와 이름을 내 입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흔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붙들고 나간 일밖에 없습니다." (정인선 팀장)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는 전혀 가져갈 수 없어 매우 당황했다. 더구나 현지어는 발음하기가 너무 까다로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듣고 발음도 고쳐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기뻐했다. 속으로 돌아갈 시간에는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아쉬웠다. 원래 선교 가기 전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두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속소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반씩 나가서 몇 집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이 집이 공산당 집이 아닌지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당대히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선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 항상 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더욱 계속 열심히 전할 것이다.

(이가현(고등부))

지나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1일(목) ~ 3월 19일(금)	정로1팀	최창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6일(화) ~ 3월 24일(수)	21교구 1팀	오재철
3월 16일(화) ~ 3월 25일(목)	11교구 1팀	이양호

취재/오남규 기자

끝나지 않은 은혜의 물결

제1차 청지기훈련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믿음의 삶

예수님과 정반대로 인간의 죄악이 늘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멸하고자 힘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놀랍고 경악스러웠지만, 이 죄악의 모습에 제 안에 또 있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끌고 갔으나, 모든 것이 상숙자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의 영원하신 대제사장(범호자)이 되시고, 그의 가슴과 어깨에 온통 우리 이름을 가득 채우시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사 62:1)해 주신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확산하며 살아가는데 소망이 생겼습니다(고후 1:19).

조영진(집사, 21교구)

나는 죄인이며 범죄자

'범죄자'는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듯한 강한 느낌이고 달는 단어입니다. 저도 제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주 말하지만 제가 '범죄자'라고 말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범죄자'라는 말은 슬쩍 회피하면서 '죄인'이라는 익숙한 단어로 마치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오래된 믿음의 경력으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생활 수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은 없는 겉데기뿐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제가 명백한 죄인이며 또한 범죄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재석(집사, 20교구)

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남성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모시고 가고자 경성시보다 빨리 퇴근하였다. 차가 많이 막혀 5분 늦게 도착하여 베다니홀에서 구역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기도드리는 주님이시야말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난 주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았는지 새삼 부끄러워했다.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중보기도를 드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조주성(집사, 10교구)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라는 청지기훈련의 설교제목을 듣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범죄자'란 이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 같았다. 그러나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단어가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는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범죄자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늘 세우며, 자랑하고 우물대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성섭(집사, 4교구)

오직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나를 위해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에 정말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파랑게 보이던 하늘이 조금씩 회미해졌습니다. 그 후 늘 구름 낀 하늘만 뚜렷게 보이던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로써 하나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나마 청각장애가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하는 처참한 시경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

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 속을 홀로 헤메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감사하고 살기에 한없이 감사의 눈물만 흐릅니다.

박진숙(집사, 에바다부)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홀로 기도하신 주님,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어 주신 큰 사랑 힘입어 기도할지 원합니다. 저의 입술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소중한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이 예비하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痛的 기도가 나오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은정(집사, 22교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가족들이 주님을 모른다 그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렵니다. 범죄자인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도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저에게 지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속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명숙(집사, 13교구)

주 앞에 드릴 것은 죄악 된 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청지기훈련은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청지기훈련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제목만으로도 저의 마음은 심히 떨렸습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열드려 회개하오나," 오늘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할 우리 같은 죄인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모두 아셨습니다. 그리고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나락하고 죄인 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끊어 없다는 사실이, 나는 그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앞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 앞에 드릴 것은 죄악 된 나뿐임을.

이상훈(청년1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청지기훈련을 은혜롭게 마치고 자동차로 아이들과 집으로 가려던 중 앞차가 후진하면서 미끄러져 '뽕' 하며 내 차와 부딪혔다. 더군다나 그 차가 그대로 뒤편을 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비상등을 켜고 쫓아가 그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차에서 내려지마자 거칠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다. 청지기훈련을 은혜중에 마쳐 진심으로 나 자신이 변화됐다고 착각을 했던 시간이, 바로 이 순간까지였을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불과 몇 분 전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언제라도 깨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함을 깨닫는다.

김종숙(집사, 19교구)

2010 겨울성경학교

예수! 소망!

※ 성경학교 내내 아이들의 당대한 마음을 통해 부족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어느덧 교사의 직분을 맡은 지 3개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사에 대해 나 자신이 회개하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말씀과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쓸 것이다. 남기훈 (교사, 유치부)



※ 해마다 참석하는 성경학교지만 올해는 특별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6개월 된 딸 애라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35년 전 부모님과 함께 중학교회 영아부에 왔던 내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 가족과 함께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은 진정 은혜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의 손길은 섬세하게 나를 어루만지셨다. 김혜영(집사, 영아부)



※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또 돌이켜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볼 때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겠다고 온 나에게 아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흘러넘칠길 기도드린다. 김광익(교사, 유아부)



※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세요. 예수님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유민재(유치부)

※ 말씀도 공부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였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은진(초등1부)



※ 찬양방, 전도방, 말씀방, 기도방, 미니올림픽,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잘 배울게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용기 내서 열심히 전도해야겠어요. 최민지(초등1부)

※ 남들은 삼일절이라 쉬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무 보람 있게 지냈다. 3월 1일은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이기 때문이다. 겨울성경학교라고 하기에 봄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나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였다. 최민형(초등2부)

※ 나는 겨울성경학교에 갔다. 주제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소망들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현(초등2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는 충현교회로 나를 인도해 준 용성엄마가 선물해 준 성경을 소실 같이 잃었을 뿐인데, 장준집 머리로서 수십 년 이어온 명절 제사상을 지난 명절에는 처리하지 않았다. 제사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있었고, 어느 순간 성경은 소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이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명절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다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해서 상을 치렀다. 아들이 "왜 제사를 안 하나? 용성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나?"고 물길래 "아니, 성경책에 제사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 했더니 아들은 그냥 웃는다.

나는 아들을 상 앞에 앉으라고 한 뒤 성경책을 앞에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읽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 웃음이 나고 참회했지만 속이 시원했다. 수십 년 지켜온 제사상을 난 이제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이 가정을 지켜 주시리라 믿음이 생겼다. 평생을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살아온 나를 변화시켜 기도로 이끌어 준 여인분 용성엄마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나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일 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 이 믿음을 내가 죽는 날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때를 써 볼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김경자(성도, 새가족양육부)

충현기도원 수양관 기공감사예배

충현기도원에 또 하나의 복음 전초 기지가 세워집니다. 이번엔 기공된 수양관은 소·중·고모의 집외와 체육활동은 물론 숙박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특히 결혼식을 비롯한 다양한 예식도 할 수 있도록 건축예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를 드러내는 시설이 되도록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새 가족 을 만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2	조희용	17 대학부	신성(21)	261	전은일	11 대학부	김은규(5)	270	전은희	18 청년1부	장희숙(11)	279	이창준	21 청년3부	김환진(23)
253	손근식	17 청년1부	김동국(10)	262	전익수	6 장년2부	김미숙(22)	271	원나	25 외선부	이규숙(12)	280	모세영	2 청년1부	이국숙(2)
254	홍도희	17 청년1부	김영희(10)	263	김근태	14 소망부	임재환(14)	272	김현정	13 청년2부	전현수(13)	281	민백기	3 대학부	류동환(13)
255	김나영	12 청년1부	장서혜(12)	264	김종우	1 청년1부		273	이희영	25 예배대부	박건기(11)	282	조성희	23 대학부	김영숙(18)
256	이유하	13 초년1부	조윤정(13)	265	왕영길	13 장년3부	황정희(13)	274	김영희	25 예배대부	박건기(11)	283	정진우	3 청년1부	김영준(23)
257	이현희	6 고등부	김태수(11)	266	김영진	1 중등부	이성숙(1)	275	이희진	14 대학부		284	이정영	3 청년1부	김영준(23)
258	이현희	6 고등부	김태수(11)	267	박우진	1 초년2부	김정희(12)	276	김종우	9 대학부	박태환(12)				
259	김은희	21 장년2부	오희재(18)	268	홍순옥	24 초년2부	정지영(24)	277	정희영	15 장년1부	오순희(15)				
260	채준철	22 대학부	안윤복(6)	269	이경진	23 청년1부	김성진(1)	278	홍세민	15 대학부	마현미(15)				

※ 충현교회의 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20

- 煙 燭

- 발, 16교구) / 27일(토) 16:00,
마로예교구, 성가대

충현어린이집 교사 모집

- 수화교실

일 시 : 3월 14일 ~ 6월 27일 매주일 15:10~16:30 장 소 : 제2교육관 에바디부실

충현교회 교인으로 선교비전을 가진 분이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

통역교사: 외국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동남아어 등)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
교사: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연령, 성별 무관 문의: 외선부 ☎ 018-328-4995

선교언어 훈련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베트남) 507호(몽골) 509호(세인트루시아)
*510호(스리랑카)

청년2부 총동원집

“복음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예배와 교제가 있습니다!”

일시: 3월 28일(다음 주일) 12:00
장소: 제2교육관 2층
대상: 35~40세의 청년 및 기혼자



2010년 전반기 교육훈련원

[illegible]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22~3/28)

	22 (월)	23 (화)	24 (수)	25 (목)	26 (금)	27 (토)	28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철환	김백남/송병석	이희진/신중식	하영욱/양승복	박승환/이정호	장진호/오승원	유재천/한성경
설교 본 문	마태의 죽음	요 10:7-18	요 1:6-14	요일 4:7-16	고후 12:1-10	골 1:3-14	히 12:1-13
주 복 고	제자의 복음	3.11, 20:2구	4.12, 22:2구	5.13, 22:2구	6.14, 24:1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예배 담당 (3/24~3/2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3/24	수요 I 수요 II	빌라도의 결정(마 27:18-26) 김성관 목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골 6:5-11) 유원철 목사	김근영 하영옥	남은희 김지선	만왕의 왕 내 주께서(호산나 찬양대) 구주와 함께 나 죽으신다(심심당 찬양대)
3/26	금요일식	김성관 목사	이순식	예루살렘 찬양대 / 첼로 이희영 / 할렘유아 합창중단원	
3/28	주일 I	왕이 오신다(눅 19:11-15) 김성현 목사	김운창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왕이 오신다(눅 19:11-15) 김성현 목사	최진철	윤석민	왕 되신 주 / 초동무주 찬양대(지도 김진배)
	주일 III	왕이 오신다(눅 19:11-15) 김성현 목사	양재용	김민식	예루살렘이 들을 / 초동무주 찬양대(지도 이정현)
	주일 IV	왕이 오신다(눅 19:11-15) 박용현 목사	한준희	고재승	복의 근원 감람나무 / 바이올린 김소현(별열 오케스트라 악장)
	주일 V	왕이 오신다(눅 19:11-15) 강호성 목사	안치원	김규식	호산나, 호산나 / 바이올린 김소현(별열 오케스트라 악장)
	주일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요 12:12-19) 박준우 목사	이희식	부대훈	찬2부 중창단 / 유아부 9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차 량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II 오전 9:00	본 당	수요일	저녁 10:30	금요일분당 앞 분당 앞 출발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의외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오전 11:00에 드리는 주일 찬양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교, 오후 11:00에 드리는 주일 찬양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수 요 예 배	1 오전 11:00 2 저녁 7:00	본 당			
수요일찬양예배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규모절차	저녁 10:30	규모장영회측 후문 앞 출발

오전 11시에 열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오호 14개 언어는 주일 3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I 오전 9:00 오후 11:00	제1교육관 110호	강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강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강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강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사망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중등부	오전 10:30	갈릴리움	사망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예배마루	오전 9:00(목요일) 오후 1:00(성일)	제2교육관 1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악아부	(수) 오전 8:30~오후 6:00 (금) 저녁 6:30~오후 9:00	선교관 1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세각양육부	오후 12:10	배다니움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국회와연락부	오후 11:00	야현홀
			영양종교지도서심	오후 8:30~오후 9:30	제1교육관 7층
			출발이먼이길	주간교구	제1교육관 107호
			교회지도자교육	초주교구	초호브교회

3월 총현 기도의 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2월 17일~4월 3일)이 되게 하신다! 사순절 특별행사(기도회)에 주력하고 성사(성무)를 전한 참관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소하라.
- ③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전도와 생명의 열매(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④ 위임목사를 십자가의 복음(마 23: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⑤ 십자가의 보혈로 봉헌한 신령한 예배(레 4:24)를 위하여 이리 콘바(US 본 컨예설) 착속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종을 배우소서.
- ⑥ 25개 교구(20곳) 교회회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국일광(전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⑦ 1년 121명(0.1%) 전도하여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대 13개에 전심결연하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외아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산교)에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종원의 재원(수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종원(종교·민족 및 현재 지원(영양), 남달(시설, 함양·훈련·봉사) 중인 사람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7)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